

독싱(doxing)

글 정상률(TTA 경영기획본부 정보협력부)

독싱이란?

독싱이란 해킹한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이다. 독싱은 ‘dropping docs(문서를 떨어뜨리다)’에서 파생된 신조어로 특정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 사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주로 공격 대상이 되며, 이메일, SNS 등에서 개인정보를 해킹한다.

독싱이라는 용어는 매우 낯설다. 우리말로로는 ‘신상 털기’로 번역할 수 있다.

신상털기는 ‘신상(身上)’과 ‘털기’의 합성어로 특정

인의 신상 자료를 찾아내 온라인에 무차별 공개하는 사이버 테러의 일종이다.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유포시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져 사회적으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초콜릿처럼 달콤한 유혹?

독싱은 중국에서 인육수색(人肉搜索)이라는 용어로 통용된다. 섬뜩하지만 정말 잘 어울리는 단어다.



미국에서는 통상 Peeping Tom Journalism(PTJ)의 일부로 간주하고 인터넷에선 독싱(doxing, doxxing)이라고 부른다. 혹은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이라고도 불린다.

Peeping Tom Journalism에서 'Peeping Tom'은 '엿보기 좋아하는 사람, 호색가, 캐기 좋아하는 사람'을 뜻한다. 11세기 초 영국 중서부에 있는 코번트리 지역의 봉건 영주인 레오프릭 백작이 주민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 주민들의 원성을 전해들은 영주의 부인 고다이버(Lady Godiva)가 영주에게 세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영주는 어림도 없다고 거절하면서 아예 더 이상 그런 말하지 말라고 못을 박겠다는 듯 "당신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성 내를 한 바퀴 돈다면

모를까?"라고 말했다. 이에 고다이버는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면서 주민들에게 자신을 알몸으로 말 타고 달리는 동안 모두 집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창문을 가릴 것을 요청했다.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겠다는데 누가 그 요청을 거절할 것인가? 그런데 고다이버가 알몸으로 말을 타고 도는 것을 집 안에서 몰래 엿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Tom이라는 남자였다. 약속대로 세금은 내렸지만, 그 Tom은 하늘의 별을 받은 건지 눈이 멀었다고 전해진다. Peeping Tom은 역사와 전설이 혼합된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이다. 현재 고

다이버라는 이름은 말을 탄 고다이버의 이미지를 로고로 쓰고 있는 벨기에의 고급 초콜릿 제조사인 GODIVA Chocolatier의 브랜드로 쓰이고 있다.

독싱, 신상털이를 지칭하는 표현과 달콤한 초콜릿 브랜드의 유래가 어찌면 사람들의 관음과 노출에 대한 유혹이 초콜릿의 달콤함만큼 매력적이지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독싱은 명백한 범죄이자 불법행위이다. 독싱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온라인상에 개인적인 사진이나 거주지 정보 같

은 너무 세부적인 개인 정보는 가급적 올리지 말고, 비공개로 올리는 것 또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쓰지 않는 온라인 ID는 최대한 정리하고, 인터넷 커뮤니

티, SNS 등에서 가능한 고정

된 닉네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절대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ID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개 닉네임이나 ID는 구글에서 검색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ID나 닉네임을 직접 구글링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독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개개인이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정보를 지혜롭게 게시하고 활용하는 예방적 인터넷 사용이 필요하다. TTA

